

이미 한가족이나 다름없는 우리!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소식터로서, 사보 '한세in'이 '한세인'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서로의 기쁨을 함께 공유해보세요. 오가는 축하 속에 행복은 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가족!

베트남이 맺어준
친생연분
이상훈 대리
(7A33팀)

둘이 있어 비로소
하나라가 되는
박성철 대리
(5부문 물류팀)

연지 끈지 짝고
시집가요
강지영 대리
(535팀)

엄마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이현아 주임
(551팀)

꽃같이 예쁘게
자리잡
박용희 과장
(6_7부문물류팀)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윤재웅 대리
(경영정보팀)

자는 모습도
예쁜 내 아이
김재현 주임
(Compliance팀)

엄마와 똑 닮은
미니미 탄생
김진아 대리
(경영기획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홍영수 대리
(인사팀)

결혼을 축하합니다

이상훈 대리 (7A33팀)	04월 11일
강지영 대리 (535팀)	04월 19일
진용민 대리&이세민 주임 (535팀&531팀)	04월 25일
이예슬 주임 (R&D TD1팀)	04월 25일
유선경 대리 (R&D 디자인1팀)	05월 05일
박성철 대리 (5부문 물류팀)	05월 15일
윤성이 주임 (R&D TD2팀)	05월 17일
자정운 주임 (1B62팀)	05월 30일
정형진 주임 (571팀)	05월 31일
김형기 주임&백승은 주임 (6A31팀&6A11팀)	06월 07일
송혜진 주임 (1BMR팀)	06월 07일
이미림 과장 (R&D Fabric2팀)	06월 07일
홍성준 대리 (531팀)	06월 27일

탄생을 축하합니다

김진수 과장 (535팀)	04월 08일
김진아 대리 (경영기획팀)	04월 20일
이현아 주임 (551팀)	04월 25일
박용희 과장 (6_7부문물류팀)	05월 22일
고혜영 과장 (313팀)	06월 02일
서경미 주임 (3B51팀)	06월 02일
김다희 대리 (6A14팀)	06월 10일
홍영수 대리 (인사팀)	06월 12일
최하나 대리 (7A31팀)	06월 15일
김재현 주임 (Compliance팀)	06월 16일
윤재웅 대리 (경영정보팀)	06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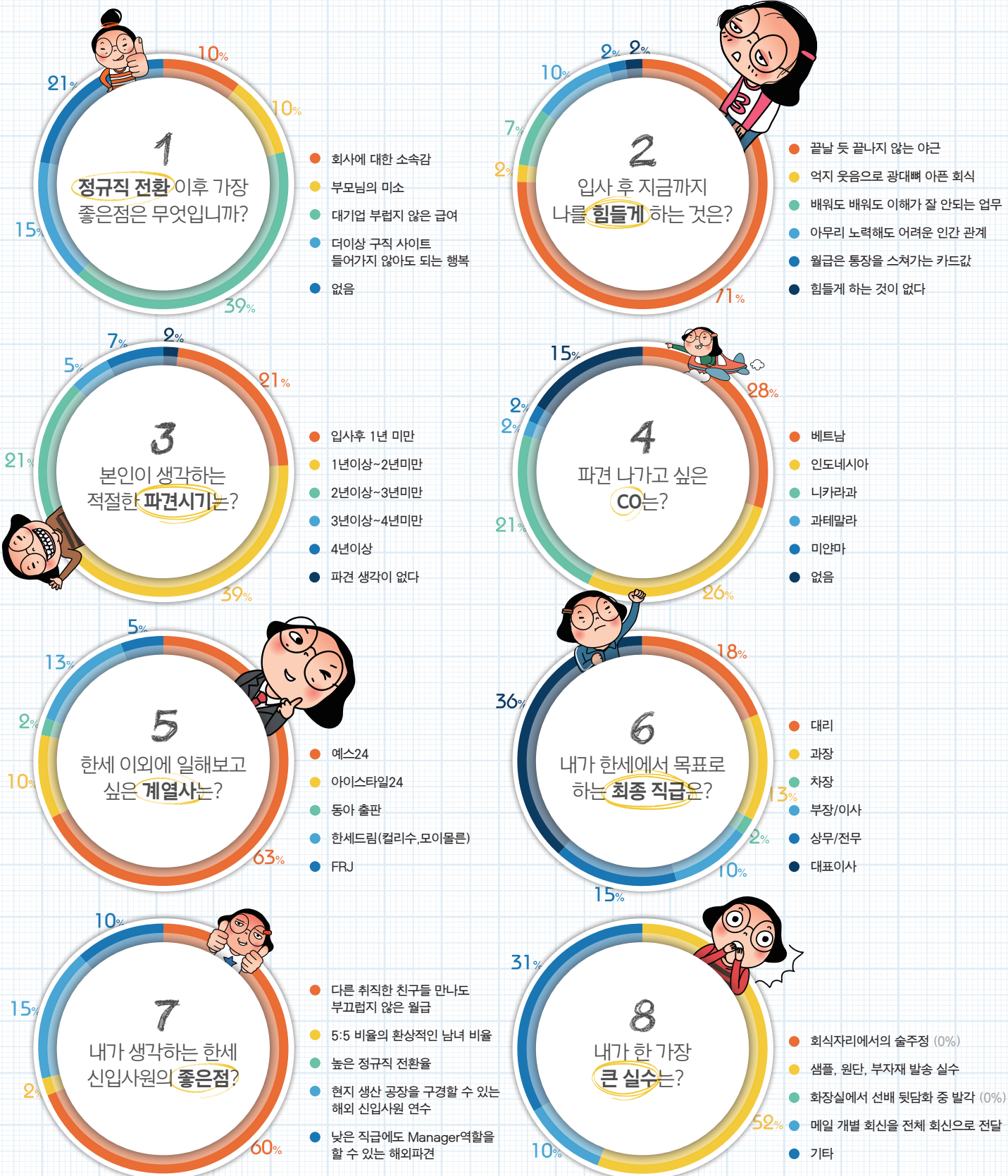
HANSAE:IN

HANSAE QUARTERLY MAGAZINE Vol.005 SUMMER

완성으로의 한 걸음

정규직 전환 신입사원 앙케이트

설렘과 어색함이 공존했던 인턴기간이 지나고 지난 4월 28일, 당당히 한세의 일원이 된 39명의 신입사원들. 이제 한세인으로서는 중요한 한걸음을 내딛는 그들에게 지난 인턴 생활과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물었습니다.



당신의 올해 휴가계획은?

내리쬐는 햇살에 저절로 등이 젖어지는 여름 적절한 휴식이 있어야 일도 잘 할 수 있는 법! 한세인들의 정기휴가 계획을 미리 들여봅니다



나만의 휴가 필수품은? 사진기 · 여유 자금 · 신용카드 · 보드 · 태블릿PC · 샌크림 · 김치 · 인조속눈썹 · 휴족시간 · 여행자 보험 · 거품입용제 · 액션캠 · 마스크팩 · 아나 · 손톱깎기 · 약 · 셀카봉 · 보조배터리 · 다이어리 · 달달한 간식 ...

이색 휴가지, 활동을 추천 해 주세요! 서핑 · 스리랑카 배낭여행 · 파후원자 방문 · 미국 서부트립 · 심심유곡에서 야영 · 지역 특산 술 마시기 · 인도네시아 라자팜 · 서울 뮤지엄 투어 · 봉사활동 · 몽골 흠스골에서 승마 · 인도 · 고향 방문하여 부모님 일손 돕기 · 필리핀 팔라완 엘니도 · 료칸 휴양도 · 미니카 공화국 · 태국의 코사무이 · 아르헨티나, 세상의 끝 마을에서 편지 쓰기 · 라마단 금식 투어 · 불영계곡 · 어디를 간다기 보단, 집에서 편히 가족과 함께 보내는것이 가장 좋은 휴가 ...

최초에서 최고로,

Coming soon 1억불!

수출2본부 1부 1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온갖 역경과 고난을 헤쳐 나온 뒤에는 더 단단해진 무기 하나쯤 들고 있는 듯한 기분 이 든다. 세계적인 기업 월마트를 대상으로 한세실업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수출2본부 1부 1팀의 팀원들이 그 러할 것이다. 팀 단위 최초로 최고 매출 달성이라는 쾌거를 안은 이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았다. 이운진 부장, 진형균 과장(팀장), 김우현 대리, 남효정 대리, 홍정현 주임, 김민혜 인턴이 함께했다. 글·한울 / 사진·안지섭



역경을 성공으로 바꾸다



고진감래(苦盡甘來).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이 말은 수출2본부 1부 1팀의 상황을 설명하기에 정확한 단어일 것 이다. 월마트(Wal Mart)대상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수출2본부 1부 1팀은 지난해 매출 41% 신장에 이어, 올해는 한세 실업 최초로 팀 단위 매출 8천5백만 불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수출2본부 1부 1팀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매출이 높기 때문만은 아니다. “원래 월마트와의 비즈니스에서 저희가 랭킹 2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11년부터 매 출이 감소하면서 선두그룹에서 이탈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매출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던 맨즈(Mens) 아이템 등이 미국 시장에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헤쳐 나가기 위해 팀이 전력투구했습니다. 현재는 황금기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진형균 팀장의 설명에 팀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흘 렸다. 세 개 팀이 한 개 팀으로 축소되고 30명가량의 팀원들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흑한기를 보냈던 때를 생각하 면 지금도 여전히 마음이 쓰리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온 결과, 이들은 더 희망찬 청사 진을 그릴 수 있게 됐다. 이운진 부장은 “월마트가 한세실업의 잠재력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잠재력이란 월마트와의 거레에 있어서 보여준 수출2본부 1부 1팀의 능력과 신뢰감의 다른 말일 것이다. 난관을 극복 하기 위해 이들이 세운 전략은 바이어의 전략에 상응하는 초특가 아이템들을 제공하고, 경쟁업체들이 도전하지 못하 는 틈새 시장을 공략했다. 한 벌에 채 2불도 되지 않는 단가는 타 바이어들 사이에서도 화자될 만큼 획기적이었다. 이 윤이 적은 저가 아이템이라는 측면에서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승산이 있다고 믿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스타일로 몇천 만 장씩 납품하니 쉬운 일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진형균 팀장은 제품 판매 분석 및 전망 제시까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가 되어 목표를 향해 가다



“2월부터 4월까지의 수능 100일을 앞둔 수험생처럼 일했어요. 제가 아이가 돌인데, 시부모님에게 육아를 오롯이 다 의존해야 할 정도로 가정을 돌볼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고생해주신 시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하 고 싶어요.” 영업 부문 소팀장을 맡고 있는 남효정 대리는 폭풍 전야 같았던 몇 개월을 생각하면 마치 아득한 꿈을 꾸 것 같다. 그건 김우현 대리도 마찬가지다. “팀에 합류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매출로는 상승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익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모두 걱정이 많았어요. 빠른 판단력과 실행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면서 전투력이 생긴 것 같 아요. 무엇보다 한세실업 역사상 처음으로 팀단위로 최고의 매출을 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수출2본부 1부 1 팀의 성공 뒤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존재했다. 아무리 바빠도 점심만은 함께 먹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들은 ‘끼리끼 리’가 아닌 ‘다 함께 모두 같이’의 마인드 덕분에 큰 어려움을 헤쳐 나올 수 있었다고 말한다. 디테일러 담당의 홍정현 주임처럼 팀에 새롭게 합류한 일곱 명의 팀원들도 큰 활력소가 되었다. 새로운 인원들이 오면서 팀 분위기는 더욱 상 승했다. 올 5월부터 합류한 김민혜 인턴사원은 “팀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겠다”며 신입사원으로서의 각오를 다졌다. 수출2본부 1부 1팀은 올해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을 한 후 내년에는 1억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coming soon 1억불’이 이들의 눈앞에 있다. 마지막으로 진형균 팀장은 해외법인공장 직원분들과 R&D본부에게 감 사의 메시지를 남겼다. “베트남 TG 법인과 니카라과 법인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초특가 프 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저가 아이템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해외 법인 공장도 매우 심사숙고 끝에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셨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품질과 생산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연구에 그 누구보다 열정을 쏟아 주 셧습니다. 그리고, 항상 월마트 팀의 성장을 위해 불철주야 함께 뛰어난 R&D 본부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규모도 BIG! 생활도 BIG! VN법인

한세in에서는 매회 한 개 법인을 소개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법인은 명실상부 가장 큰 해외법인, VN법인입니다. VN법인은 2001년 12월 open 이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2015년 현재 현지인 약 9,800명, 한국/3국인 관리자 100여명의 인원이 근무하는 명실상부한 한세의 가장 큰 해외법인입니다.

구찌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다! VN법인 주변 맛집



10,0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있는 VN법인의 주변은 이제 설립 초기와는 달리 구찌 지역의 중심가와 같은 존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오랫동안 VN법인을 지켜오신 공장장님, 현장 계장님들께서 발굴하신 주옥 같은 맛집들은 해외파견을 나오면 살이 빠진다는 속설을 무참히 깨며 법인 관리자들의 사랑방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NHA HANG CHINH_ 생각만해도 침 고이게 하는 매콤달콤한 양념 소고기구이 식당

NHA HANG PACIFIC_ 찹쌀밥한 새우구이와 감칠맛나는 해물볶음면, 해물볶음밥을 저렴하게 양껏 먹을 수 있는 식당

공을 날리며 스트레스도 던져버리자! 테니스 동호회

VN법인은 많은 직원들이 있는 만큼 각자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취미 동호회는 바로 테니스 동호회입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생산기획, 외주관리, 현지영업 직원들은 물론 개발실장님들까지 적극 참여하는 동호회로 바쁘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생산현장과 낯선 해외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동호회입니다. 동호회원들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정은 덤이겠죠?



호치민시에서 주말을 보내는 법



직장인이려면 누구나 목을 빼고 기다리는 주말! 비록 베트남법인은 토요일도 정상근무이지만, 근무를 마치면 삼삼오오 모여 호치민 시내로 갑니다. 동남아시아 교통의 중심지이자 유명한 관광지인 호치민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칵테일을 마시거나 한국에 비해 훨씬 저렴한 마사지, 네일샵 등지에서 업무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합니다. 때로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러 법원에서 약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아름다운 붕따우 해변으로 갑니다. 붕따우 해변은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해있어 베트남 법인 야유회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맘이 맞는 사람들과 1박2일로 놀러가기에도 부담없는 장소입니다.



COLOR&TOUCH팀 / 전 베트남 VN 법인 2공장 생산기획

진병기

1. 신규공장 세팅할 때!
2. 내일이 월요일일 때...
3. 업무는 별 차이 없으니 화이팅!



1A21팀 / 전 베트남 TN 소속 1본부 외주관리팀

최은아

1. 오더가 컨테이너실 채우고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2. 외주 공장에서 밤 11시까지 기다리며 출근했던 기억...
3. 방미경 대리! 많이 힘들 텐데 잘 버티고 파이팅!!



심영호

1. 신규공장 3개동을 세팅했을 때!
2. 부족한 언어.
3. 찜찜이 관광지를 둘러보세요!

1부문 물류팀 / 전 나가 법인 총무



복귀를 신고합니다! From 1~2분기 전입자

전 세계에 법인을 두고 있는 글로벌 한세! 이번 1~2분기엔 총 29명의 전입자들이 긴 타지생활을 뒤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의 회노애락과 남은 동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까지, 각 지역을 대표하는 13명의 복귀 소감을 들어볼까요?



박성인

1. 현지 관리자에게 여러 지원을 해줬을 때
2. 현지 업체의 잘못된 공인들이 식중독에 걸렸을 때
3. 힘든 점이 많지만 새로운 인연들과 좋은 추억 만드세요!

홀딩스 경영분석 2팀 / 전 베트남 NIKE 영업팀(원단)



홍성준

1. 복귀 후 DOLLAR를 원화로 환전하는 순간!
2. 영업 윗분들과 공장장님 사이에서 눈치 봐야 하는 순간
3. 거기가 좋은 곳이다. 빨리 들어오려고 하지마래!

531팀 / 전 베트남 TN 법인 3공장 생산기획



문요한

1. 시스템을 확립, 세팅했을 때입니다.
2. 여자친구를 만나지 못하는 것...
3. 돌아오면 한 잔만 더 해요~

571팀 / 전 베트남 VN 법인 NIKE 영업 2팀 부자재 담당



이은영

1. 첫 언더아머 출고를 성공리에 마쳤을 때!
2. 방역 후 법인 곳곳에 죽은 쥐들이...
3. 승혜 과장님, 제 오더 잘 챙겨주세요~

1C52팀 / 전 베트남 TN 법인 5공장 생산기획



최은영

1. 신규 공장으로 제 모습을 갖춘 VN 6공장에 망고 나무를 심은 일
2. FINAL 진행해야 하는데 완성이 밀릴 때...
3. Lucky.

1A22팀 / 전 베트남 VN법인 6공장 생산기획



수출5본부물류팀 / 전 베트남 VN 법인 메인오피스 회계

김은희

1. 무사히 업무를 마쳤다는 사실 자체!
2. 언어 소통.
3.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중화

1. 2개 법인에서의 긴 해외근무
2. 경조사를 함께 할 수 없을 때
3. 배우고자 한만큼 경험할 수 있어!

홀딩스 경영분석팀 / 전 베트남 TN 법인 회계, C&T VINA 회계



이남호

1. 인맥을 많이 늘릴 수 있었던 것
2. 아플때...(타지에서 아프면 제일 서럽습니다. ㅠ.ㅠ)
3. 몸 건강히 컴백함~ 하여 소주 한 잔 하자~

322팀 / 전 인도네시아 Utama 법인 외주 생산 기획



서예슬

1. 기다리던 컨테이너가 입고되었던 날!
2. 비와의 전쟁을 했던 휴식기간의 나날들.
3. 건강하게 잘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출1본부물류팀 / 전 인도네시아 Utama 수출인





스컬리수 축구 대잔치 후기



한세실업의 지주회사 한세에스24홀딩스와 한세드림이 주최한 (컬리수 축구 대잔치)가 올해로 4회째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세는 어린이들의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글 : 원수영 과장(DBM팀)

2015년 5월 9일. 평소 같으면 한껏 여유를 부렸을 주말 아침이지만 감자와 과일 등 간식거리를 싸고 두 아이들과 함께 수원 월드컵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한세에서 주최하는 컬리수 축구 대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2013년에는 staff로 참여했었지만, 4회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간다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또 기본적인 식수는 물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의료진도 잘 준비 되어 있어 좀 더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축구장 한쪽 편에서는 룰렛 돌리기, 버블체험전,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드로잉등 여러 event들도 많이 진행 되고 있었습니다. 룰렛을 돌려 선물도 받고, 컬리수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손길로 멋진 페이스페인팅도 받을 수 있어 아이는 물론 어른들까지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나게 버블체험도 하고 챌리켓 인형과 놀고 즐기다 보니 어느새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념품으로 받은 티셔츠, 축구공, 메달을 안고 돌아오는 길, 아이들은 차에 타자마자 바로 꿈나라로 향했고 저 역시 피곤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축제 같은 분위기에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동료들과 회사가 아닌 야외에서 만나 엄마로서의 시간을 보낸 것도 잊지 못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컬리수 축구 대잔치도 기대하겠습니다!

뛰노는 즐거움이 가득했던

제4회 컬리수 축구 대잔치





네팔 지진 긴급구호 기금 10만불 유니세프에 전달

한세실업은 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네팔 국민을 돕기 위해 유니세프에 미화 10만달러를 전달했다. 지난 5월 유니세프에서 진행된 네팔 구호금 전달식에 참석한 한세실업 김경 전무는 "네팔 구호작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빠른 시간 내에 희망이 다시 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기부금은 유니세프를 통해 네팔의 지진 긴급 구호에 사용 될 예정이다. 구호금 전달식에 참석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서대원 사무총장은 "지원 기금은 고통 받고 있는 네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해 신속하게 사용된다"며 "네팔 어린이들이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김동녕 회장, EY 최우수기업가상 행사 참여

지난 6월 모나코에서 개최된 EY 최우수기업가상 행사에 한국 최우수기업가로 선정된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이 참석하였다. 매년 6월 모나코에서 열리는 EY 최우수기업가상은 전 세계 기업 중에서 혁신적 스토리를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업인에게 영예를 수여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김동녕 회장은 작년 이 부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최우수기업가로 선정된 바 있다. 행사를 주최한 EY 측은 김동녕 회장을 소개하면서 "때때로 천천히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라는 그의 경영철학을 첫 문장으로 올렸다. 이 철학은 김동녕 회장이 사업의 흥망성쇠를 겪으며 체득한 것으로, 행사에 참가한 각국의 기업가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다.



글로벌 패션 의류 전문가 양성 - 뉴욕서 직원 연수 진행

한세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패션 의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5월 '우수 직원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우수 직원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올해 14번째로 개최된 '한세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내 우수 직원 20명을 선발하여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미국 패션 트렌드를 비롯해 전세계 패션에 대한 인사이트(Insight) 신장과 벤치마킹 요소, 자율적으로 선정된 현지 내수 시장 체험 등으로 구성되었다. 김철호 상무는 "전세계 패션 허브인 뉴욕을 방문한 이번 연수는 한세 직원들에게 글로벌 패션 시장의 변화와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세실업, 전국소년체전 출전하는 바둑 청소년에 장학금 전달

한세실업은 '제9회 한세실업 배 릴레이 대학동문전'을 통해 적립된 후원금을 지난 6월 26일 바둑 청소년에게 전달했다. 후원금 적립은 올해 대회부터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1회전부터 16강전까지 진행되는 바둑 대국의 돌 하나당 310원을 적립하는 행사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적립된 후원금은 약 200만원이며,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하는 바둑 청소년 차부일(경북 포항 향도중 1년)군과 조운서(인천 청천중 1년)군에게 전달되었다. 한세실업의 윤권식 부사장은 두 학생에게 직접 장학금을 수여하며 차부일 · 조운서 군이 소년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응원했다.

'문화햇살콘서트'에 문화 소외 계층 초청

'문화햇살콘서트'가 지난 5월 15일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열렸다. '문화햇살콘서트'는 평소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환경의 이웃들에게 문화가 있는 삶을 제공하고 문화를 함께 나누기 위해 개최되었다. 한세실업과 예술의 전당이 후원하는 행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되었으며, 공연 당일에는 한세실업 임직원 50여명을 비롯한 지방 분교의 학생들, 장애인 문화 협회 및 복지회, 복지후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및 가족 등 500여명이 초청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세실업 윤권식 부사장은 "지난 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문화햇살콘서트 후원을 통해 문화 나눔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 공헌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세드림, 제 4회 켈리수 축구대잔치 '뛰어라 우리 아이' 개최

한세드림은 5월 9일과 10일 이틀간 수원시 월드컵경기장에서 제 4회 켈리수 축구대잔치 리틀K리그 '뛰어라 우리 아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세예스24 홀딩스와 국내 대표 유아동복 기업 한세드림이 공동 주최 및 협찬하고 (사)한국유소년축구교육원이 주관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6~7세 유치원 대상 축구대회로, 전국에서 68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기 후 우승팀 수상 없이 공평하게 메달을 수여했고 부상으로 축구공과 유니폼을 전원에게 증정했다. 한세드림 마케팅 팀 김승환 과장은 "한세드림 축구대회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축구대회 중 가장 규모가 큰 특색있는 행사"라며 "뛰어라 우리 아이 축구대회를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신체건강은 물론 건강한 체육문화발달에 이바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세실업 진 캐주얼 브랜드, (주)에프알제이 인수

지난 4월 한세실업이 패션유통기업인 (주)에프알제이를 인수했다. 한세실업은 해외 5개 국가의 11개 해외 법인에서 의류를 생산,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의류생산수출 기업이며 전세계 유명 의류 브랜드들의 전략적 파트너로써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유아동복 전문 유통기업인 한세드림(구. 드림스코)을 인수하며 그동안 OEM, ODM에 집중하던 사업영역을 패션유통업으로 확장한 바 있다. 한세실업 관계자는 "한세드림이 한세실업의 인수 후 지속 성장하고 있듯이 (주)에프알제이도 지금보다 더 경쟁력 있는 환경에서 예전의 브랜드 명성을 회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세실업, '정규직 전환' 신입사원 환영식

한세실업은 지난 4월 28일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39명의 신입사원 환영식을 진행했다. 이번 신입사원 환영식에서는 최근 진행됐던 베타남 연수를 통해 느낀 점을 조별로 발표하고, 임직원들의 환영과 격려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한세실업은 신입사원 가정에 합격 축하 메시지와 이용백 대표의 감사편지, 신입사원들 본인이 직접 만든 옷을 전달했다. 이용백 대표는 "한세실업은 지난해 어려운 세계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1조3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오는 2018년에는 2조원 달성을 위해 정진하고 있다"며 "신입사원들에게 최고의 근무조건을 제공하고 미래 인재, 글로벌 인재로 육성함으로써 글로벌 패션 의류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